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이미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교재와 기존 교재의 관련성
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사용 방법
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법

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과 기존 교재의 관련성

영어권 국가의 한글학교(한국학교)에 보급된 한국어 교재들은 다양한데¹⁾ 북미 지역에서는 『맞춤 한국어(영어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실제로 본 교재 개발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2016년 5-6월)에서도 미국 내 한국학교의 약 80%가 『맞춤 한국어(영어권)]를 사용해 봤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교재와 상이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가 2016년에 배포되어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데다가, 또 다시 2017년 상반기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이 배포되어 교육 현장에서는 교재 선택 및 활용에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NAKS 표준 평가 문항집’을 개발하여 기존 교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1) 『한국어』 및 지도서 (2001~2007)

『한국어 회화 1,2』 (2001)

『한글 기초 (상), (하)] 및 지도서 (2006~2007)

『한글학교 한국어』 및 지도서 (2008~2009)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2』 및 지도서 (2012)

『맞춤 한국어(영어권) 1,2,3,4,5,6,』 및 지도서 (201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1-6』 및 워크북, 지도서 (2015)

2)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을 대륙별로 분석해 봤을 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대륙이 가장 많았다. 8개 대륙 중 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다섯 개 지역에서 「국정교과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글학교 한국어』는 오세아니아, 『맞춤 한국어』는 북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러시아·CIS 지역에서는 대학기관 한국어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김재욱 외, 2014:46).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새 교재들을 활용하게 된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 한국어(영어권)』가 개발된 지 6년이 지나 새 교재가 필요한 시점임을 생각할 때, 각 학교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새 교재로 교체하여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영어권 국가의 한국학교에서 사용될 현지화 교재 개발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2008~2009년에 개발된 범용 교재 『한글학교 한국어』를 기초로 『맞춤 한국어(영어권)』(2011년)을 개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15년에 개발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를 기반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2017)을 개발한 것이다. 첫 번째 현지화 교재는 범용 교재를 단지 참고로 삼았던 것과 달리, 두 번째 현지화 교재는 범용 교재를 기반으로 삼아,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대부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 o맞춤 한국어(영어권)d

- 『한글학교 한국어』를 기초로 삼아 2011년에 개발됨
- 1~6권이며 초등 3, 4학년 수준까지 활용 가능
- 문법 난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초급, 중급 하’에 해당함(한국 기준)
- 각 교재는 16개 단원(주 1회, 2~3시간 학습 분량)
- 각 교재는 약 20개의 문법을 다루어 총 124개 정도의 문법(표현)을 포함함
- 부록: 듣기 지문, 문법, 어휘 색인

○ o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d

- 2015년 말에 개발되어 2016년에 배포됨
- 초(초등 저학년 대상), 중(아동, 청소년 대상), 고급(청소년 대상)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에 맞춰 개발
- 초급(1~3권), 중급(4~5권), 고급(6권)의 단원 모형 및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
- 교재(CD포함),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가 세트를 이루어 총 36권
- 각 교재는 16개 단원(주 2~3시간 분량)³⁾

○ o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d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범용 교재의 교육과정, 단원 구성을 기반으로 함
 - 단원 주제(중심 내용), 문법, 중심 어휘
 - 단원 구성, 단원 분량

3) 6권은 한 단원이 4시간 수업 분량으로 제시됨.

- 현지 요구를 반영한 현지화
 - 인물, 대화 상황 및 내용, 문화 내용
 - 어휘 보완, 활동 보완
- 학습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구성
 - 미학습 문법이나 표현 사용을 최소화
 - 연습 활동의 수월성, 효과 제고 노력
 -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방법 검토
- 기타: 삽화 및 교재 편집 작업은 모두 새롭게 이루어짐, 영어 번역 첨가

<표 1>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에서 수정된 사항(초급)

단원 구성	내용 수정	번역 부분
도입	• 도입 사진 • 대화문의 맥락 및 듣기 요점 제시 • 발음 생략(듣고 말하기 부분으로 이동함) • 대화문의 수준 조절	단원명 지시문 대화문(부록)
어휘	• 어휘를 의미장으로 묶어서 제시 • 맥락과 긴밀한 어휘 선별 작업 • 어휘 연습 추가	지시문 어휘 의미
문법 및 표현	• 문법 정보(‘이렇게 해요’) 삭제 -> 부록에 문법 설명으로 포함 • 연습 문제의 도움 단서 제시 • 현지 상황 반영	지시문 문법 설명(부록)
듣고 말해 봐요	• 발음 추가 • 새 단어 추가 • 도입 대화문과 비슷한 맥락의 대화 제시 • 현실 반영 내용으로 부분 수정	지시문 새 단어
읽고 써 봐요	• 새 단어 추가 • 현실 반영 내용으로 부분 수정	지시문 새 단어
함께해요	• 활동 제목 명시 • 활동 방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그림 수정	활동 제목 활동 방법 설명
문화를 배워요	• 문화 설명을 영문으로 제시 • 문화 요소, 내용 기술 수정 • 질문 수정	문화 제목 문화 설명 질문

o맞춤 한국어(영어권)d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o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d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난이도와 학습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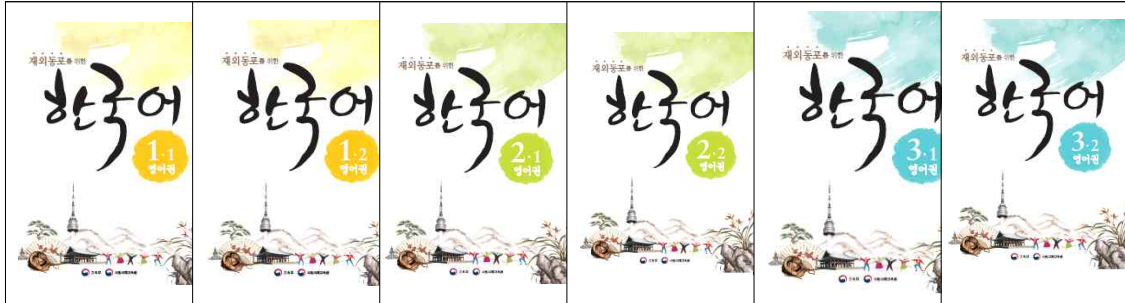
첫째, 두 교재에서 다루는 언어 요소, 특히 문법 배열 순서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등급에서부터 연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급부터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거나 특정 등급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중복되거나 다루지 못하는 문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두 교재가 모두 16개 단원에 주 2-3시간용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난이도와 분량이 다르다. 자모 학습을 보면, 『맞춤 한국어(영어권)』는 10개 단원을 할애하지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은 6개 단원을 할애한다. 따라서 한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저학년이라면 보조 자료로 선학습 한 후에 본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면 『맞춤 한국어(영어권)』를 2~3년 사용하다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2권 정도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으로 교체할 때는 무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어휘, 대화문, 문법 등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이 적지 않으나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주요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법을 중시하는 한국어 교육 특성을 고려할 때, 문법 목록의 단원 이동이 없다는 점은 교체 사용을 수월하게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교재 교체 시에 교사의 교수법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은 어휘 번역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 내용이나 문법 번역(부록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주력해야 했던 교사의 역할이 이해 후 사용, 활동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사용 방법

(1) 초급 교재 구성 및 사용



- 10개 단원, 5개 복습 단원, 1개 종합 연습
- ‘문화를 배워요’-영어로 제시
- 부록: ① 단원별 답안과 듣기 지문(모범 답안, 대화문(영어), 듣기 지문(한국어), 문화(한국어) ② 문법 및 표현(영어) ③ 어휘 색인(한국어, 영어)

① 단원 도입, 본문	② 배워 봐요: 어휘	③ 배워 봐요: 문법 및 표현	④ 듣고 말해 봐요
⑤ 읽고 써 봐요	⑥ 함께해요	⑦ 문화를 배워요	

▶ 생각해 보기: 어느 부분을 생략, 통합할 것인가?

언어 요소 학습과 기능 통합 활동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① 단원 도입, 본문 (20분)

- 단원의 주제 소개 - 문답 대화
- 학습 목표 명시
- 대화 맥락 제시, 무엇을 중심으로 들을지 알려 주기
- 본문 듣기, 들은 내용 확인하기
- 본문 읽기

② 배워 봐요: 어휘 (25분)

- 도입: 알고 있는 어휘들 이끌어 내기
- 제시: 의미 파악, 발음 익히기, 사용 상황이나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법
- 연습: 어휘 연습 활동, 워크북 어휘 문제, 함께해요 활동 등

※ 암기/기억하기를 위한 다양한 전략

- 무리 짓거나 분류하기, 알고 있는 어휘들과 연결하기, 상황을 설정하고 생각
- 그림(시각) 활용, 의미의 장 설정, 발음하면서 소리 활용
- 행동을 재현하거나 신체 느낌과 연결하기, 기계적인 방법 활용

③ 배워 봐요: 문법 (50분)

- 도입 및 제시
 - 그림, 문답으로 문법 사용 상황으로 유도하고 문법 노출하기
 - 문형 카드와 예문 제시하고 문법 설명하기
 - 형태 정보 예를 들어 설명하기
 - 이해 점검하기(간단한 사용)
- 연습
 - 문제 푸는 방법 설명, <보기> 확인, 어려운 어휘 확인
 - 학생들 활동, 확인
 - 추가 연습 활동

※ 교재 부록에 제시된 설명이나 교사용 지도서의 ‘선생님의 문법 노트’를 활용한다. 관련 참고 자료로 최근에 출간된 양명희 외(2016)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들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 개발 연구”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게 예문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문법의 내용 기술이 사전식 기술을 따르지 않고 교수 학습에 필요한 의미, 용법 설명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학습자 오류와 혼동하기 쉬운 문법 간의 비교 대조, 관련 문법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④ 듣고 말해 봐요 (25분)

- 들을 내용 예측하기: 문제 그림 활용, 교사와의 문답
- 문제 푸는 방법, 답지 어려운 어휘 확인
- 들려주기, 정답 확인
- 어휘(발음) 확인 - 칠판에 쓰고 발음해 보기, 관련 단어 제시
- 필요한 경우에 듣기 지문 확인

- 연습 활동 안내
- <보기> 대화문 읽기, 반복
- 말하기 연습 및 확인
- 확장 연습

⑤ 읽고 써 봐요 (25분)

- 무엇에 대한 글인지 알게 해서 읽을 내용 예측하기: 그림을 활용한 문답
- 글 읽기: 초급에서는 상향식을 많이 활용하되 점점 묵독 방법을 활용함
- 문제 풀고 확인하기, 내용에 대한 교사의 추가 질문
- 읽은 후 활동: 학생 상호 질문, 정리해서 말하기, 생각 말하기 등

- 쓰기 과제 알려 주기
- 쓰기 전 준비 활동: 이야기 나누기, 쓸 내용 정리하기
- 글쓰기 및 피드백

⑥ 함께해요 (30분)

- 무슨 활동인지 알려 주기
- 활동 방법 알려 주기, 시범 보이기
- 함께 활동하기
- 생각(소감) 말하기, 마무리하기

⑦ 문화를 배워요 (15분)

- 문화 내용 알려 주기
- 문화 관련 지식이나 경험 상기시키기: 문답
- 교재의 문화 내용 알아보기: 읽기, 설명, 질문 대답 등 다양한 방법
- 이해 확인하기: 질문1
- 현지 문화, 자기 상황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기: 질문 2, 3

(2) 중급 교재 구성 및 사용



- 12개 단원, 3개 복습 단원, 1개 종합 연습
- ‘문화를 배워요’-한국어, 영어로 제시
- 부록: ① 단원별 답안과 듣기 지문(모범 답안, 듣기 지문(한국어) ② 문법 및 표현 (영어) ③ 어휘 색인(한국어, 영어)

① 단원 도입	② 어휘	③ 대화	④ 문법 및 표현
⑤ 듣고 말해 봐요	⑥ 읽고 써 봐요	⑦ 문화를 배워요	

▶ 생각해 보기: 어느 부분을 생략, 통합할 것인가?

‘대화’, ‘듣고 말해 봐요’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③ 대화

- 그림을 보며 대화 상황 파악하기, 대화 내용 예측하기: 문답
- 무엇에 중점을 두고 들을지 안내하기
- 대화를 반복해서 듣기, 내용 확인하기
- 대화문을 읽으면서 어휘, 표현 등 확인하기
 - 학습 문법(언어)에 초점이 가도록 질문하기, 해당 표현에 밑줄 긋기 등
 - 대화를 들을 때 듣지 못한 부분 확인하고 이유 파악하기
 - 전체 내용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점검이 필요한 어휘 학습
- 대화 내용/상황/인물에 대한 생각 말하기

⑤ 듣고 말해 봐요

- 그림을 활용해서 들을 내용 예측하기
 - 문답 또는 목록 지우기 활동
- 무엇에 중점을 두고 들을지 안내하기
 - 교재의 문제를 먼저 읽고 듣는 방법
 - 교사가 2step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
 - 듣기 능력이 많이 부족할 때는 이해를 돕는 장치 마련해 주기
- 들으면서 과제 해결하기, 이해 확인하기
- 듣기 지문을 활용해서 다시 듣기, 읽기 등
 - 지문을 보면서 다시 듣기, 지문에 표시하기
 - 어려운 어휘 설명하기
 - 어려운 발음 연습하기
- 어떤 말하기 활동인지 안내하기
-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생각 나누기
- (미니 레슨으로 발표 관련 지도-설명, 시범)
- 소그룹으로 말할 내용 계획하기
 - 표, 다이어그램,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해서 내용 계획
 - 말하기 준비
- 발표하기, 피드백

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법

(1) 어휘 지도

한국어 어휘를 안다는 것은 어휘 사용 방법을 알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휘를 기억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글에 어휘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고, 어휘와 연관되는 언어적 패턴에 대한 지식, 어휘가 사용되는 문장 틀에 대한 지식, 모어 대응 관계에 관한 지식 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화 교재에는 영어 번역이 있어서 중급 이상에서도 그 어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어휘가 사용되는 문장 틀, 함께 사용되는 언어 관계, 기억해서 사용하는 연습 등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이 어릴수록 강점 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다양한 감각입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단어 분류하기

단어의 의미, 유사점, 철자 특징 등에 따라 단어를 범주화하여 분류한다.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 철자 특징, 형태적 특징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단어 인식력을 높이고 기억을 강화시킨다. 또한 분류하기 활동이 갖는 논리수학적 지능 강화 효과도 있다. 10-20개 정도의 단어 카드 또는 단어 그림을 활용한다.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분류하는 활동도 가능하며,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기준을 세워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같은 어휘들을 다른 기준을 활용해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절 수로 분류하기,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특정 글자가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기

○ 단어 확장을 위한 의미 관계

중급 이상에서는 상위어, 하위어, 자매어 등을 함께 연계해서 체계적인 어휘 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확장으로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계망을 구성해서 계획하되 순차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예) (상하관계) 시계-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알람시계

(자매관계) 짜다-달다, 맵다, 시다, 쓰다



(2) 읽기 지도

○ 합창 읽기(Choral Reading)

다중의 읽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표현적으로 읽는 것을 배우며 유창하게 읽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읽기를 통해 우애를 다질 수 있고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다. 소리 내어 읽는 활동 자체가 읽기와 구어를 유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급에서 합창해서 읽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적절히 변화를 주도록 한다.

- 메아리 읽기: 선도자가 한 줄을 읽으면 나머지 학생들이 한꺼번에 따라 읽는다.
- 한 학생이 읽은 후 합창 읽기: 선도자가 중심 부분을 읽으면 나머지는 후렴을 읽거나 같이 합창한다.
- 소집단 읽기: 둘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씩 소리 내어 읽는다.
- 연결해서 읽기: 한 학생이나 집단이 일부를 읽고 다른 학생이나 집단이 연결해서 읽는다.

○ 어휘 목록 지우기

주요 개념이나 어휘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읽기 전 활동으로 많이 활용한다. 단어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관련 있는 내용 고르기, 관련 없는 것 지우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용의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글에 나오는 어휘들을 안내하는 기능이 있다. 글을 읽은 다음에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도 활용한다. 중급, 고급 읽기 활동에서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빈칸 메우기 활동

빈칸 메우기는 글의 정보나 구조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확인하는 좋은 진단 도구이다. 교재에서 이미 학습한 읽기 자료 중에서 단어에 비워 빈칸을 만들고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채워 넣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은 전에 읽어 보지 않은 읽기 자료에 대해 독서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읽은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교재에 활용한다면 규칙적으로 빈칸을 만드는 것보다 내용어를 중심으로 빈칸을 구성하는 등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쓰기 지도

○ 상호작용하며 쓰기(Interactive Writing)

하나의 짧은 글(두 문장~한 단락 이내)을 소그룹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활동이다. 특히 철자나 문법적인 정확성을 높이도록 초점을 두는 활동에 적용한다. 스토리는 2문장 이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간단한 그림이나 연속 컷을 보며 이야기를 구성한 후에 그 내용을 함께 문장으로 완성하면서 다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스토리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정확한 철자나 표현을 협력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습한 문법이나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학습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 협동 쓰기

학생들은 글의 일부분을 담당해서 초고 쓰기, 수정하기, 완성하기를 거쳐 다른 동료들과 글을 완성한다. 각자의 일기나 주말 활동을 연결해서 쓰기 등으로 각자가 쓴 글을 통합할 수 있다. 교재의 중고급 쓰기 활동은 개인 활동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장시간을 요하므로 협동 쓰기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미니 레슨(Mini lessons)

글쓰기와 관련해서 초점화 된 수업을 진행한다.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특정언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유창성,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쓰는 주제나 내용은 단원의 것과 연결 짓는다. 미니 레슨은 보통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해도 무방하다. 학생들이 바로 레슨 받은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개인 활동으로 진행해도 좋고 소그룹 활동도 무방하다.

교사는 예를 제시하고, 시범 보이고 연습을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활동

다양한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 쓰기 전 활동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래픽 조직자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제시할 것인지는 사용 목적에 달려 있는데 한 단락을 넘는 내용이라면 일부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그룹으로 구성하거나 반 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현화·이미혜. (2011). 한국어교육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재욱 외. (2014). 재외한글학교 교재 분석. 2014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박정진·조재운·옴김. (2012). 문식성 전략 50: 단계별 언어 기능 교수 전략 (50Literacy Strategies: Step by Step). 서울: 한국문화사.
- 양명희·이선웅·김재욱.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중급 조사·표현). 서울: 집문당.
- 양명희·이선웅·안경화.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중급 어미). 서울: 집문당.
- 양명희·이선웅·안경화·김재욱·유해준.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중급 조사·표현). 서울: 집문당.
- 양명희·이선웅·안경화·김재욱·정선화.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 어미). 서울: 집문당.
- 전지현·김진완·박주경·유제명·이소영 공역. (2007). 영어교육 길라잡이: 말하기. 서울: 도서출판 인터비전.